

지역 소식통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김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일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김선례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제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시청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대표이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재활지원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사랑 상품권 설맞이
구매 한도·발행액 확대

완주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통용되는 완주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구매한도를 2월 한 달 한시적으로 늘린다.
1일 완주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 달간 상향한다고 밝혔다.
완주사랑상품권 발행액 또한 기존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으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류상품권 구입은 관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며, 카드상품권은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새마을금고,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가능하다. /완주=염재복 기자

“고산·동상 만경강 거점으로”

유희태 완주군수, 고산면·동상면 연초 방문
레저스포츠 육성·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도 속도

유희태 완주군수가 연초 방문으로 고산면과 동상면을 찾아 만경강 프로젝트 거점 지역으로 양 지역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하천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고산권역에만 세심정 수변공원, 자전거 거도로, 자전거 스테이션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레저스포츠 거점이 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연초 방문으로 고산면과 동상면을 찾아 만경강 프로젝트 거점 지역으로 양 지역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고산면 읍내리 만경강 수변 인근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워터도 만들어진다. 만경강 발원샘 '밭샘'이 있는 동상면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올해 생태탐방로, 생태숲길, 주변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해 발원샘의 위상을 올리고,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킨다.
유 군수는 “만경강 주변 레포츠 시설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을 약속했다.
특히,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을 매입하면서 주민들의 교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산북부권은 고산, 동상면을 비롯해 비봉, 운주, 화산, 경천면 등 6개 지역이다. 현재 완전 공영제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노선계획 수립, 운전원 고용 등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유 군수는 “대중교통도 복지다”며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과감히 공영제를 추진했고, 내실있는 준비로 주민편의를 크게 높여왔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창업 예정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감소와 영입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원(부가세 제외)과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 시는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창업 성장단계에 부응하는 경영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경제진흥과(☎ 063-540-345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6명의 창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김제지점, 저소득 가정에 명절선물꾸러미 기탁

꾸러미 100박스 300만 원 상당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JB금융그룹 전북은행 김제지점(지점장 김범식)이 1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꾸러미(1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명절선물 꾸러미는 즉석밥·떡국(컵)·김·라면·커피·치약·칫솔·즉석커피·수세미·물티슈 등 총 10종

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범식 지점장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이 많아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향토은행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JB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북은행 김제지점에 감사드리며, 기탁해 준 꾸러미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김제시는 보건진료소 건강지킴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30일 보건진료소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김제노인복지센터 간 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보건서비스 제공

보건진료소 건강지킴이 사업 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보건진료소 건강지킴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30일 보건진료소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김제노인복지센터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소 건강지킴이 사업은 김제시 25개 보건진료소에 지역 내 어르신들이 파견돼 보건진료소 진료 안내, 내·외부 환경 정리 등 지역 보건진료소의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지역 내 보건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발견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마을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혼자 근무하면서 현장 방문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보건진료소는 업무 특성상 진료소가 비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지킴이 사업을 통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호응도가 더 높다.
아울러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도움과 함께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 1석 2조의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김제시 다른 기관과도 협력해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는 보건소 운영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대자인 병원 협력 아동 심리검사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완주군이 드림스타트 아동의 심리 건강 증진과 조기 중재를 위해 아동 심리검사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아동 심리검사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에서 정서적 어려움, 학습 및 행동 문제 등으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종합심리검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사를 통해 아동의 상태를 진단하고 약물치료, 비우치 연계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발달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자인병원, (사)대자인건강사랑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검사 지원을 위해 협력

하기로 했다.
대자인병원은 드림스타트 아동 종합 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을 진행하고 (사)대자인건강사랑후원회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대자인건강사랑후원회의 추가 후원으로 대상자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들에게 심리검사 기회를 제공한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의 심리검사 지원을 위한 협력이 지속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언어·정서·행동·신체·건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